

수업성찰일지로 본 성인발레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김수아* · 박수영**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무용은 신체를 매개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추상적 움직임으로 표현하며,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 환경 등 외부적인 요소들을 재인식하게 된다. 무용은 음악, 안무, 표현, 문화적 사회적 맥락 등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다면적 예술 형식이지만, 단연 중요한 요소는 움직임과 그 움직임을 표현하는 신체이다. 이러한 무용의 특성 때문에 무용교육은 실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은 신체 움직임뿐 아니라 지적 능력의 발달, 사고력 향상 등 여러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발달까지 다양하다(김인영, 2016, p. 1; 김재은, 서예원, 2011, p. 8). 그러나 우리나라 무용교육은 대부분 전공자의 실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의도된 교육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처럼 편향된 교육방식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김재은 등, 2011, p. 3).

과거 무용교육의 주된 학습자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무용전공생들이었으나 시대의 흐름과 함께 무용 교육의 대상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취미 발레를 즐기는 성인학습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에서 삶의 질에 대한 가치 인식으로부터 시작해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또한 발레가 여러 매체를 통해 노출이 되면서 소수만 향유할 수 있는 고급예술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발레를 진지한 여가로서 향유하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인들의 진지한 여가 수준의 증가는 발레지속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박수영, 2019, p. 82).

* 주저자,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 박사과정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조교수, ballet0229@cnu.ac.kr

성인학습자의 무용예술 향유 목적은 단순히 실기 능력 향상만이 아닌 신체적 건강, 심리적 치유, 사회적 관계 형성, 예술의 욕구 충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각도의 수업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허가영, 2015, p. 260; 김지현, 2021, p. 51). 교수자는 학습자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신체 움직임에 소극적인 참여자들에게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수를 제공해야 한다(고문수, 2021, p. 544). 김지현(2021, p. 33)의 연구에서는 전공생을 위한 수업 방식을 성인학습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과 학습자들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육 자료나 프로그램에 대한 결여에 불만족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대해 체계적인 수업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최근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대상을 위한 체계적인 연령별,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재은, 노미라, 윤필규, 2022, p. 89; 김지현, 2021, p. 51; 유은혜, 윤혜선, 2018, p. 49; 허가영, 2015, p. 260).

무용 전공생들은 오랜 기간 무용지식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신체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자연스레 습득하는 반면, 대부분의 성인 학습자들은 무용에 대한 지식이나 신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에 여러 제약이 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발레에 관한 기초 지식습득과 신체의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단순히 실기만 반복하는 것이 아닌 이론적인 학습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즉, '무용을 위한 무용' 이 아닌 '교육을 위한 무용'의 관점으로 접근해야하며, 이는 성인학습자들의 다양한 무용 예술 향유 목적과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적 접근방식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인문학적인 글쓰기와 무용의 통합에서 오는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에 주목하였다. 현재 무용교육에 인문학적 방법을 적용한 성찰일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무용수업에서의 글쓰기 수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정재, 이정화(2008, pp. 7-8)의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무내용을 구체화하여 정리하는 글쓰기 과제를 통해 학습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인지적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글에 대한 토의와 비평적 태도, 협동 학습이 교육적 측면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 하였다. 노은초(2014, pp. 467-468)의 연구에서는 무용전공 대학생이 수업에서 자신이 배운 것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발레학습 능력 향상, 적극적 수업 참여, 자기 성찰로써 문제 해결력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김인영(2016, p. 107)은 무용전공 대학생의 무용 수업에서 성찰일지 작성이 학습자의 학습 도구, 교수자의 교수 도구,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소통의 도구로 작용하며, 무용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무용전공을 대상으로 한 실기수업에서의 성찰일지 작성은 교육적 측면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무용교육에 인문학적 글쓰기를 적용하여 무용교육의 기반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대상이 무용전공자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발레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발레수업에서 인문학적 글쓰기를 적용한 성찰일지 작성 경험이 어떠한지 그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에 학습자들의 성찰일지 작성에 따른 발레학습경험을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았으며, 그 경험에서 얻어지는 공통적인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들

대상으로 한 무용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 체계성을 갖춘 효과적인 성인발레의 학습을 위한 초석이 되는 연구가 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는 체험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그 체험 속에 존재하는 본질적 요소와 구조를 밝히는 연구방법이다. 즉 본질적 요소는 그 체험이 그 체험일 수 있게 하는 무엇이라 할 수 있다(김영천, 2013, pp. 90-94). 크레스웰(Cresswell, 2007)의 언급에 따르면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며, 현상학자들은 모든 연구 참여자들의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강조하였다(김영천, 2013, pp. 90-94).

현상학적 연구유형은 해석학적 현상학과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구분된다(김완일, 김옥란, 이호진, 권명훈, 2018, pp. 276-277).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의 두 가지 연구유형 중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기술에 초점을 두는 초월론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현상학 연구의 대표 학자 중 콜레이지(Colaizzi, 1978)의 6가지 분석절차를 사용하였다. 콜레이지의 분석방법은 참여자 전체의 경험을 광범위한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성인 발레 학습자들이 성찰일지 작성을 하며 개개인이 경험하는 현상을 보다 넓은 범위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며, 분석에서 얻어지는 내용을 통해 공통적인 의미를 탐색하는데 적합하리라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절차에 따라 개인의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그에 따른 공통적인 현상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자의 선이해와 편견으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괄호치기와 판단중지를 하였다. 그 내용은 ‘성인 학습자들은 발레경험에서 신체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성인 학습자들은 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이다.’, ‘성인 학습자들에게 발레는 단순한 운동의 경험일 것이다.’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동일집단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담당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의 스포츠센터 성인 발레 강좌 수강생들이며, 수강생 대부분은 발레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3개월에서 10개월 사이로 참여기간이 비슷하였다. 이에 소규모의 참여자들이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동일 집단의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기에 적합하였다. 본 강좌의 참여빈도는 주 2회이며 수업 구성으로는 바 워크와 센터로 이루어진 기초발레 수업이다.

연구 시작에 앞서 연구 목적을 밝힌 안내문을 수강생에게 배부하였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수강생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료로 사용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연구참여자	성	나이	직업	발레 경험 기간
K	여	37	학원강사	10개월
S	여	45	과외교사	10개월
J	여	48	전업주부	10개월
O	여	36	전업주부	3개월 (어린 시절 경험)
P	여	45	전업주부	10개월

3.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는 2022년 12월 7일~2023년 1월 25일까지 8주간 주 1-2회 자율적으로 성찰일지 작성을 하였다. 일지작성이 진행 중인 4주차 1월에 중간 면담을 진행하였고, 일지 작성이 종료된 시기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최종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시작부터 자료 분석까지 연구를 위한 전체 기간은 총 6개월이 소요되었다.

주요 분석 자료는 연구 참여자들의 성찰일지 경험에 관한 심층면담이며, 참여자들이 작성한 성찰일지는 면담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성찰일지로 본 발레학습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므로 일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 수업성찰일지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 도구로 성찰 일지를 활용하였다. 무용 수업에서 성찰 일지 적용한 선행 연구를 탐색한 결과, 김인영(2016, p. 54)의 연구에서 무용 실기수업에 사용 가능한 성찰일지 개발 모형을 참고로 하여 성인학습자에 맞게 질문 내용을 지도교수1인과 박사 과정 대학원생 2인과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조화된 모형을 참고한 이유는 연구 참여자들의 발레경험이 비교적 짧은 1년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구조화 된 항목이 작성에 용이 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작성기간은 총 8주 동안 자율적으로 주1-2회 작성 하되 연구기간 내 최소 6회 이상 참여를 요청하였다.

작성방식은 서면 수기 작성 방식과 온라인 작성 방식 중 연구 참여자들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게 하였으나, 참여자 모두 온라인 작성 형식을 택하였다. 온라인 형식은(네이버 오피스 폼)으로 제작하여 각 연구 참여자에게 링크를 전송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즉시 연구자의 이메일로 전송 되도록 설정하였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의 일지 내용과 참여도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질문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였다. 일지의 내용은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연구 참여자들이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지가 연구자에게 제출되는 형식임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성찰일지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작성한 성찰일지의 문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수업성찰일지 문항

수업성찰일지 주제 요소	일지 문항
1. 학습 내용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배운 수업 내용과 구성은 어떤 것 이었나요? • 오늘 발레 수업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2. 학습 목표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하고 싶은 발레 동작은 무엇인가요? • 발레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변화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 팀 활동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 수강생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었나요?
4. 학습한 지식 적용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배운 수업을 통해 다른 학습이나 개인경험과 연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요? • 오늘 학습한 지식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이 있나요?
5. 학습한 내용의 개선점에 대한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수업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과, 선생님의 지적사항은 무엇이었나요? • 이것과 관련하여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요?
6. 느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수업에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수업 전 후의 감정과 신체 컨디션 등 자유로운 느낌을 적어주세요. • 발레 수업 참여와 관련하여 스스로에 대해 칭찬해주고 싶은 점이 있다면 기입해주세요.
7.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선생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 심층 면담

수업성찰일지를 작성하고 그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 각 개인별로 2-3회의 심층 면담이 이루어졌다. 1차 면담은 수업 장소 주변의 조용한 카페에서 약 60분 가량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확인과 추가 질문을 위한 2차 면담은 전화 면담으로 약 30-40분가량 진행되었다. 또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전화 면담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면담 과정으로는 성찰일지 작성 경험에 관한 중간 면담, 사후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하였다. 면담을 위한 질문은 반구조화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하여 구체화 된 진술을 얻을 수 있었다. 기본 질문 내용으로는 수업성찰일지를 경험해본 전반적인 소감이 어떠하였나요? 수업성찰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은 어떠하였나요? 작성 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은 어떤 것 이었나요? 수업성찰일지 작성이 발레 수업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요? 이었다. 대면 면담과 전화 면담을 포함한 모든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하였으며, 원하는 경우 녹취내용 일부 삭제나 참여의사를 중단 할 수 있음을 알렸다. 연구 참여자는 이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자와 참여자가 각각 서명을 한 후 1부씩 나누어졌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성인 취미 발레 학습자들의 수업성찰일지 작성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콜레이지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에 기초하였으며 이는 개인적 속성보다 연구 참여자의 전체의 경험을 광범위한 차원에서 분석 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 의미와 본질을 탐구 한다(김완일 등, 2018, p. 277).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성찰일지 작성을 통한 수업경험을 포괄적으로 바라보며, 주관적인 의미 뿐 아니라 공통되는 객관적인 경험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라 판단하였다.

김영천(2013, p. 107), 김완일 등(2008, p. 277) 저서에서 밝힌 콜레이지의 6단계 분석 절차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진술에서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며 의미 있는 문장들로 분류하였고, 그에 따라 의미 단위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의미를 주제 묶음, 범주화하였고, 주제 묶음을 통합하여 현상에 대해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기술이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다.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 윤리를 위하여 지도교수1인, 박사 과정 대학원생 2인과 협의하여 삼각검증(triangulation)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내용 분석을 통하여 70개의 의미 단위, 주제 36개, 주제모음11개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의 5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주제와 주제 모음은 <표 3>에 제시하였고, 연구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과 주제를 주제모음에 따라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성찰일지를 작성하면서 경험하는 발레학습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표 3> 분석 내용 정리

범주(Categories)	주제모음(Theme Clusters)	주제(Themes)
진지한 여가로 이행되는 매개체	발레학습에 관한 심화된 생각	용어 학습의 중요성 인식
		발레에 대한 다른 각도의 생각 확장
	발레 지식 습득의 욕구 발현	확장되어 찾아보게 됨
		학습에 많은 시간 할애
인지 능력의 향상	학습 내용의 인지	발레 지식에 대한 관심
		수업 내용 기억 노력
		반복되는 내용 인지
		순서외우기에 도움
	신체에 대한 인지	수업에 집중도를 높여줌
		발레 동작을 위한 신체의 관심
심리적 양가감정의 유동성	작성의 즐거움	동작에 대한 인지
		피드백 소통의 도움
		작성에 부담 없는 마음
		정해진 항목의 편리함
	기록이라는 부담감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제출의 의무감
		지식 부족에서 오는 일지 신빙성 결여
		글이라는 소통의 한계
	작성 과정의 무료함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부담감
		고정적인 항목의 권태감
	목표 지속성 결여	
	정해진 문항에 대한 구속감	

수업 참여를 돕는 원동력	참여 동기 형성	일지 쓰는 개인적 계기
		수업 참여에 대한 적극성
		성취감 생김
	자기 효능감 경험	목표가 생성되는 경험
		목표에 대한 도전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격려
발전된 나의 모습을 발견		
성찰의 계기 마련	의미를 생각하게 함	나의 발레 의미에 대한 생각
		기록에 대한 성찰
		일지 필요성에 대한 생각
		일지 전망에 대한 생각
	외부와 연결되는 생각	다른 분야에서의 기록 시작
		일상에서의 적용 개인적 보완으로 활용

1. 진지한 여가로 이행되는 매개체

수업성찰일지로 본 성인학습자들의 발레경험은 발레학습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로서 의미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발레를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했으나 수업성찰일지를 작성하면서 발레 용어 학습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발레학습을 다른 각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생각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찰일지 작성을 위해 미흡한 지식의 보완을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탐색하였으나 관련된 정보 외에 더 확장하여 알아보게 되었고, 이러한 욕구는 진지한 여가로 연결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였다.

가. 발레 학습에 관한 심화된 생각

성찰일지 쓰기 전에는 선생님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따라했고, 이것을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 용어를 알고 발레수업에 참여를 하면 몸이 준비를 하고 반응해요. 용어를 모르는 채로 들으면 흘러들게 되고, 남이 하는 동작을 보고 따라하게 되요.

발레가 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술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동작도 있고, 음악도 있고, 예술적인 면도 있고 그것을 표현도 해야 하는 종합 예술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찰일지 쓰기 전에는 가볍게 접근했다면 일지를 쓰고 난 후 부터는 더 신경을 쓰려고 해요. (참여자 S)

발레를 배울 때 용어를 알고 배우면 몸이 준비를 하게 되요. (참여자 O)

용어의 뜻이 동작 설명과 비슷하기 때문에 동작을 보면서 더 공부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J)

발레는 그냥 동작을 보고 따라 하기만 하면 알기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풀업이라든지 갈비뼈를 벌여지지 않게 닫으라는 것 이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따라한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참여자 P)

나. 발레에 대한 지식 습득의 욕구 발현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성찰일지를 쓰면서 이론적 지식을 보충하고자 관련 정보를 검색하였으나 의도했던 범위보다 더 확장하고 탐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 하게 되었고, 수업에서 배웠던 범위 외에도 발레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났으며 이를 충족하고자 하였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용어 뿐 아니라 집에 가서 더 찾아보게 되요. 수업 시간에 하는 나의 자세가 정자세인지 그날 수업에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따로 SNS를 많이 보게 되고, 동작을 찾아보다보면 관련 정보가 알고리즘으로 계속 나오다보니 생각했던 시간보다 연장되어 보게 되요. 이렇게 찾아보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지적해주는 것 외에 다른 부분도 알게 되요. (참여자 K)

일지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상을 한번 씩 찾아보게 되요. 일지로 인해 뭔가를 찾아보는 것이 연결 연결이 되요. 우연히 발레 관련 영상이 떠서 보면 ‘아 이 단어가 맞았구나!’ 알게 되요. (참여자 J)

복횡근, 등, 몸을 끌어올리는 것 등등 일지를 쓰다보면 계속 찾아보게 되요. 골반 세우는 영상을 찾아보고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계속 같은 질문에 같은 말을 쓰면서도 ‘이런 것도 있었지, 저런 것도 있었지’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다른 것도 계속 생기긴 하더라고요. (참여자 P)

2. 인지 능력의 향상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성찰일지 작성 경험은 인지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학습 내용 인지 능력과 신체 인지 능력 향상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었다.

가. 학습 내용의 인지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발레를 시작한지 1년 미만으로 발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발레 수업에서 사용되는 용어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의 이해를 도왔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성찰일지를 작성을 통해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발레 용어를 기억하려 했고 용어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었다.

제가 전에는 진짜 용어를 하나도 몰랐는데 참고하라고 주신 용어 프린트 물도 일지 쓰면서 도움이 되었고 공부가 많이 되었어요.

성찰일지 쓰기 전에는 선생님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따라했고,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지를 써야하니깐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기억하려고 계속 마음속으로 단어(용어)를 기억하려고 해요. 제가 전에는 용어를 하나도 몰랐는데 ... (참여자 S)

기록을 남겨야하기 때문에 성찰일지 쓰기 전에는 동작으로 기억했으면 이제는 용어로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발레 기초 용어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부분을 검색해보고 그날 수업에 들었던 용어를 찾아서 기록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참여자 K)

일지 쓰는 그 시간만큼은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생각을 더듬게 되요, 이제는 나름 기억하려고 제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작한지 얼마 안 되서 용어나 동작들이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 상태로 시작 했지만 ... (참여자 O)

오늘은 어디에 조금 주안점을 둘까 아니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한 가지는 기억해야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해주는 동작의 용어를 듣기는 했는데 머릿속에 대충 외운 것이라 이게 맞나 싶어서 용어 검색을 해보았어요. (참여자 J)

시작한지 얼마 안 되서 용어나 동작들이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 상태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일지를 쓰면서 조금이나마 공부해서 찾아보고 ... (참여자 O)

수업 성찰 일지에 수업 내용을 기입을 통해 반복되는 말이 인지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기억을 오랜 기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일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을 하다 보니 기억력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제일 유용했던 항목은 수업에서의 지적 사항 기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작이나 자세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때면 듣던 얘기인데 일지를 쓰다보면 어느 날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전체적인 발레 클래스를 하는 것이라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써요 ... 쓸 말이 있어야 글로 남길 수 있으니까 그전보다 더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 일지를 쓰면서 좋은 것은 순서를 좀 더 잘 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P)

피드백 주실 때 보고, 듣고, 쓰기 때문에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 요즘은 일지를 쓰지 않으니 수업 내용에 대한 기억이나 집중을 덜 하게 되지만 일지에 썼던 내용은 수업시간에 기억이 나요. (참여자 S)

일지의 내용 중 피드백 주신 내용이 생각나고 또 수업에 반복적으로 말씀해주시니까 '아 내가 이게 문제였지' 하면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요. 성찰일지 아니었으면 집에 와서 그냥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성찰일지가 수업내용 기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같아요. (참여자 O)

오늘은 어디에 조금 주안점을 둘까 아니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한 가지는 기억해야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수업 중에 제 나름대로의 임팩트 있었던 부분이 기억나고, 즉시 핸드폰에 기록을 해요. (참여자 J)

지금은 일지를 쓰지 않고 있지만 전에 썼던 기록이 기억이 나요. (참여자 K)

나. 신체에 대한 인지

올바른 동작을 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이를 인지하게 시작했다. 단순히 따라만 했던 동작이었지만 그 원리를 분석하고 인식하게 됨으로 신체 움직임에 대해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전에는 안 되는 동작을 그저 막연하게 안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일지를 쓰다 보니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하며 고칠 점을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이 동작을 할 때는 등을 더 세워야

졌구나, 계속해서 풀업을 더 해야겠구나 이렇게 조금씩 인지하면서 더 하게 되었어요. 센터에서 플리에 할 때 가우똥 해서 일지에 풀업 대한 기록을 했고, 자꾸 신경쓰다보니 확실히 덜 무너졌어요. (참여자 P)

어느 날 허벅지에 힘이 들어간단던지 어떤 부위 힘이 들어가는 것들을 캐치하게 된 것 같았어요.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는 힘을 빼고, 위로 끌어 올리고 하는 것들을 의식하게 되었고 ... 탄두할 때 허벅지 안쪽 힘, 쑤스 할 때 허벅지 크로스 하는 것들을 글로 한번 남겨보았더니 수업시간에 기억이 나요. (참여자 S)

처음에는 진짜 앞에 하시는 분들 따라하느라 바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몸에 익고 계속 말씀해주시는 몸을 끌어올리는 것도 기억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안 되는 동작이 거울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축이 자꾸 뒤로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참여자 O)

허리를 바르게 세운다는 자세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일지에 기록하고 나니 계속 신경 쓰게 되었어요. (참여자 J)

3. 심리적 양가감과 유동성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성찰일지 작성을 하면서 심리적 양가감과 유동성을 경험하였다. 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수업참여에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제출의 부담과 일지 항목의 무료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가. 작성의 즐거움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발레 수업에 관한 질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수업성찰일지를 작성하는 도중 수업 관련 질문이 생각나게 되고, 추후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평소에 해놓는 편이어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일지 형식에 맞춰서 그날그날 빠지지 않고 써야하는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꾸준할 수 있어 좋았어요 ... 피드백을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참여자 P)

성찰일지 주소를 클릭해서 키보드로 작성하고 있어서 편했어요. (참여자 J)

피드백을 그렇게 길게 답변 주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해주실 시간이 나다니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감사해서 저도 쓸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평소에도 자세 잡아주시고 해주시는 것처럼 피드백 주신 것도 기억에 남았어요. (참여자 J)

피드백 경험이 좋았어요. 일지를 쓰면서 질문이 생각날 때도 있더라고요. 게시판에 질문하듯이 질문을 남기는 형식이 좋았어요. (참여자 S)

선생님 피드백 받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세세하게 주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도움이 되었어요. (참여자 O)

나. 작성의 부담감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성찰일지 작성 후 제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쓰는 글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수업 내용을 기억을 해야 기록 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기도 하였다. 또한 질문 사항을 글로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표현의 모호함으로 원활한 소통에 한계를 경험하였다.

순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용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연구 자료에 쓰인다고 하니 제 일지가 도움이 안 되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부담을 느끼긴 했어요. 하지만 수업 끝나고 일지를 써보는 것은 굉장히 좋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래야 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쓰면 도움이 된다는 걸 분명히 느꼈거든요. 누가 검사하지 않고 나 혼자 썼더라면 안 쓰게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봤으니까 이거는 잘했겠지 하면서 글을 써보기는 하는데 이게 칭찬할만한 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O)

직접 물어 보는 게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몸으로 표현한 것을 글로 쓰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서로 직접 보여주면서 질문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일지의 피드백이 수업 적용에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일기도 그렇잖아요. 자꾸 일기를 나를 위해서 써야하는데 자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쓰게 되면 검사 받는다는 느낌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성찰일지를 지속할 생각이 반반이에요. 성찰일지가 경험으로서는 되게 좋은데 기간을 지속하려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 정확한 자세를 제가 잘 모르니깐 그런 것들을 스스로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작에 대한 칭찬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S)

사실은 동작을 몸으로 하는 것을 배우러 가는 것이라서 글로 쓰는 질문보다는 그 자리에 질문을 물어보고 잡아 주시는 게 사실은 더 많이 피드백이 되요. 정말 사소한 성격 아니고는 다들 적극적으로 물어 보시잖아요. 직접 물어 보는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질문을 남겨서 다음날 피드백 보다는 사실 궁금했을 때 직접 물어 보는 게 좋아요. 이걸 성격차이 인 것 같아요. (참여자 K)

질문은 직접 여쭙 보는 게 답변해소에 조금 더 낫긴 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질문이 생각이 안 났다가 추후에 궁금한 점이 떠오르기도 해요. (참여자 P)

다. 작성과정의 무료함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성찰일지의 구조화 된 항목으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에 대한 편리함을 느끼면서도 고정적인 항목에 대한 권태감이 생겨났고 그 권태감으로 인해 새로운 목표를 기입하게 되어 목표 지속성이 결여되었다. 또한 정해진 일지 형식 대한 구속감도 느끼며 일지 작성의 무료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일지를 쓰면 막연하게 쓸 수 있는 데 문항을 나눠주고 세분화되어 쓸 수 있으니 좋았어요. 문항이 없었더라면 뭉툭그러져 빠진 부분이 있었을 텐데 문항이 세분화되어 있고 문항마다 예시가 있어서 꼼꼼하게 쓸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참여자 S)

문항이 있어서 더 좋았어요. 문항이 없었더라면 뭘 써야할지 고민이 되면서 단순히 수업 내용만 기입했을 것 같아요. 문항이 성찰하기 좋았어요. 문항이 같으니 매일 같은 말을 반복되게 쓰기는 했지만 문항이 없는 것 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참여자 O)

지금의 형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유롭게 쓰라고 하면 무슨 내용을 써야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적응이 되면 그냥 자유롭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자 J)

일지를 쓰면서 정해진 항목이 있으나 매일 똑같이 쓰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같은 질문에 계속 새로운 것을 생각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찰일지 형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객관식 위주이되 주관식 한 두개 넣어서 추후에 보았을 때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P)

오늘에 관련된 것은 고정되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동작을 위해 성취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요?’와 같은 항목은 항상 고정적으로 작성하기보다 다른 걸로 변경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지의 질문 항목을 내가 더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어떤 일지 쓰는 것을 공유하면서 변화과정을 제시하고 싶어요. 큰 질문을 놓고 1년, 6개월, 3개월 등 분기별로 체크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아요. 제출용도가 아닌 그냥 개인적으로 독서 기록 쓰듯이 써보고 싶어요. 남하고 공유하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괜찮고요, 질문도 자유롭게요. (참여자 K)

4. 수업 참여를 돕는 원동력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성찰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업 참여 동기 형성과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였다. 수업성찰일지 작성을 참여하게 된 계기는 각기 다르지만 일지 작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가. 참여 동기 형성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일지를 쓰게 된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으며, 이는 수업 참여의 적극성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어 참여 동기의 형성으로 연결되었다.

어떤 일을 그냥 막 하면 남는 게 없는데 뭔가 쓰니까 남는 게 있으니까 다시 뭐라도 남겨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K)

동작이나 용어를 알아보는 성찰의 의미로 일지를 쓰는 게 주목적이었어요. (참여자 P)

(ADHD로 인한) 동작의 순서를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방금 들은 말, 방금 본 것 이런 것을 잘 기억 못하거든요. 이게 제 단점이고, 힘들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보자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하루 일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유 될 때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성찰일지도 마침 잘 됐다 싶었어요. (참여자 J)

개선 할 점에 대한 항목에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는 사실 쓰고도 안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썼으니까 한번은 해봐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해주었어요. 내가 오늘 이거 좀 안됐던 것 같은데 좀 더 잘 해보고 싶다하며 연습하게 되요. (참여자 O)

나. 자기 효능감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성찰 일지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경험하였고, 동작에 대한 목표가 생겨났다. 또한 글로 쓰면서 목표에 도전하고자 하였으며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에 스스로 격려를 하게 되었고, 발전하는 나의 모습도 발견한다.

(일지를 쓰면서)성취감은 있었어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거 좀 안됐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잘해보고 싶다 하며 연습하게 되었어요. 칭찬 항목은 스스로 칭찬할 일이 많이 없는데 ‘나는 오늘 이거하나는 노력 했구나’를 마음속으로 생각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참여자 O)

일지를 쓸 때 성취하고 싶은 동작은 매일 달랐었어요. 그날 배웠던 동작 중에서 이 자세를 더 잘하고 싶고, 다음날은 저 자세를 더 잘하고 싶고요. 센터할 때는 몸이 흔들리니 다음에 균형을 잘 잡게 해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목표가 매일매일 달라졌어요. (참여자 K)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동작이 발전한 건지 알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글로 쓰게 되면 목표 하는 게 보여서 단기간으로 신경을 더 쓰게 해 주었어요. 그냥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꾸준히 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동작보다는 나의 노력에 칭찬하는 그런 성찰을 했어요. (참여자 P)

마음가짐에 대한 칭찬을 했을 때는 출석에 영향을 주었어요. (일지를 쓰는 시기)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참여자 S)

어른이 되면 사실 누구한테 칭찬받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라도 하나 써 놓고 내 스스로한테 하나라도 더 말할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남들에 비해 내 다리가 오늘 좀 더 올라갔다 던지, 전 보다 다리 찢기가 바닥과 가까워진 느낌의 자기만족이 있었어요. (참여자 K)

일지 쓰는 것이 큰 도전이라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했는데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게 좋았어요. 동작이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니까 내가 되네?’ 하는 느낌에서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일단 시종일관 수업에 출석했다는 것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J)

5. 성찰의 계기 마련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성찰일지 작성 과정에서 나의 발레 경험에 대한 성찰과 기록이라는 것에 대해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일지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가. 의미를 생각하게 함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성찰일지를 쓰며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발레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며 성찰하게 되었다.

일지로 인해 내가 뭘 원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의 발레 경험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어요. 수업 때는 동작을 별 생각 없이 하다가도 일지를 쓸 때쯤이면 그 동작에 의미부여가 되어 쓰게 되요. 기록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 이게 6주의 짧은 연구였지만 기록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긍정적인 느낌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고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참여자 J)

일단 발레는 공부도 함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는데도 왜 힘들까?' 해요. 이런 부분이 자기 성찰인가 싶고 ... 수업 때의 내용을 잊지 않으려고 검색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 놓기도 해요. 또 생각나면 찾아보기도 하고요. 이것은 일지를 쓰기 전에도 매번 하던 일이예요. 이런 것들이 나한테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참여자 P)

주로 제 마음가짐에 대한 칭찬하는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참여자 S)

나. 외부와 연결되는 생각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성찰일지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독서 일지와 같은 다른 분야의 기록도 함께 시작하거나, 일지의 내용을 기억하며 일상에서 적용이 되는 점이 있었고, 개인적인 보완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발레 수업 외 외부적인 것들과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성찰일지 쓰는 것으로 인해 예전에 썼던 독서일지도 다시 쓰게 되었어요. (참여자 K)

발레를 배우는 김에 고쳐버리겠다 라는 마음을 먹어서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옆으로 자지 않고 똑바로 누워 자고 있고, 어깨도 말리지 않게 하고, 쇄골도 펴고 있으려고 노력해요. (참여자 P)

소파에 앉을 때는 보통 옆으로 걸터앉는 자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지를 쓰면서 허리를 좀 더 세우게 되더라고요. 목도 세워보려고 하고요. 일지를 안 쓰는 지금도 일상에서 노력은 하려고 해요. (참여자 O)

다른 운동시간(요가)에 이런 성찰일지에 대한 내용이 생각났어요. 자세나 허리를 잘 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J)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인 발레 학습자들의 수업성찰일지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였다. 이에 콜레이지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성인 발레 학습자들의 성찰일지 경험은 진지한 여가로 이행되는 매개체, 인지능력의 향상, 양가감정, 수업참여의 원동력, 성찰의 경험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성찰일지 작성 경험은 발레에 대한 심화된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

으며, 발레학습에 대한 지식 습득 욕구를 발현 하게 해줌으로서 발레를 진지한 여가로 연결해주는 매개체의 역할로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일지를 작성하기 위해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수업성찰일지가 지식의 확장과 이해를 돕는 학습의 도구가 되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김인영, 2016, p. 107; 노은초, 2014, p.467).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성인 학습자들이 발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던 상태로 시작하여 습득의 노력을 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발레에 대한 심화된 생각과 용어학습의 중요성 인식으로 연결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레 용어는 용어 자체로 동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학습을 병행할 경우 신체가 미리 준비하게 된다는 점을 참여자들 대부분이 인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성인 학습자들의 용어 숙지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처럼 발레 기초 지식이 부족한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인문학적 학습의 병행은 보다 더 정확한 무용지식을 습득하게 해주고, 수업의 내용을 구체화 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성찰일지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예상 보다 더 오랜 시간 학습하게 되며 지식습득에 열의를 보여주었다. 이는 김지현(2021, p.30)의 성인 학습자들의 교육내용 요구에서 정확한 동작에 대한 설명이나 근육에 쓰임 등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들의 요구를 고려할 때 이러한 수업성찰일지의 역할은 그들의 지적 욕구의 충족을 도와주며, 발레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지식 습득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업성찰일지의 활용을 통해 성인 학습자 발레학습에 대해 진지한 여가로의 이행을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성찰일지 작성으로 인해 학습의 인지와 신체 움직임의 자각하는 인지능력의 향상 경험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동작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수업 내 강조점을 인지하고, 기억이 오래 유지되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동작의 순서가 더 잘 외워지기도 했다. 이는 유정재 등(2008, p. 7)의 무용 수업에서 글쓰기 과제 경험을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한 지식을 구체화, 세분화시키는 활동으로 인지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발레에 대한 기초지식과 신체적 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단순히 동작만을 모방하게 되면 수업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인학습자의 경우 자칫 부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용지식과 신체 인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사료 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인지적 향상으로 인해 수업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그날의 수업이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기록에 남기면서 다시 재인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 내용을 인지함으로써 알게 된 지식이 신체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졌다. 김인영(2016, p. 101)의 연구에 의하면 무용전공생들의 성찰일지를 작성으로 인해 생긴 인지적 효과가 신체에 적용되면서 발레 수행의 향상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 역시 성인 학습자 인지능력이 신체의 자각으로 이어지며 인지와 신체의 자각이 함께 하는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수업 성찰 일지를 활용하는 수업은 학습내용 인지를 돕고 신체의 자각, 동작의 원리를 분석하게 하여 성인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 시켜주는 효과적인 수업방식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성찰일지 작성의 과정에서 양가감정의 유동성을 경험하였다. 일지 작성에 즐겁게 임하면서도 제출의 의무감이나 내용을 기억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공존했다. 일지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일지 작성 여부나 횟수 등 참여 확인을 위한 제출이었으나 한편으

로는 부담이 되어 기록을 위한 작성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 연구 참여자는 제출의 부담을 느꼈지만 오히려 이러한 강제성이 스스로에게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부담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질문 항목에서는 소통에서 오는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을 느꼈지만 글로는 작성하기 어려운 동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현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글로 질문하는 것보다 대면으로 질문하는 것이 더 용이했지만, 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각나는 질문들이 있어서 유용하기도 하였다. 일지 작성 방식에서는 온라인 형식으로 정해진 문항이 있어 작성의 수월함을 느끼는 반면 매번 반복되는 고정문항에 대한 권태감과 구속감으로 작성의 무료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일지 작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양가감정을 경험하면서도 성찰일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성찰일지 작성 과정에서 수업 참여에 동기부여가 되었고,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찰일지를 쓰기 이전에는 발레를 단순히 신체활동으로 의의를 두었으나 일지 작성의 과정을 통해 동작에 대한 목표가 생겨났다. 목표를 글로 작성하기 때문에 목표가 시각화 되었고 이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발레 참여에 스스로를 격려하는 글을 쓰고, 이로 인해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성찰일지 작성은 수업 출석에 영향을 주었고,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형성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목적이 없었던 발레학습이 일지를 통해 목표를 생성하게 만들어 주었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의지를 확고히 하는 모습은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게 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 사료된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 성찰일지를 작성하며 발레 수업에 대한 의미를 성찰하였고, 이러한 성찰이 외부와 연결고리가 되어 확장되어 나갔다. 수업일지의 역할은 단순히 학습내용의 기록이 아닌 자신의 발레 경험에 대한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였고, 반성의 기회가 되었다. 발레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글쓰기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지하며 다른 분야의 기록도 함께 시작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기록에 대한 의미가 더욱 확고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글을 쓰는 과정은 각자의 개인적인 계발과 일상에서의 적용으로 확장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인 발레 학습자들의 수업성찰일지의 경험은 학습의 매개체 역할, 인지능력의 향상, 수업 참여의 원동력, 성찰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성인 무용교육에서의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성인 학습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무용 예술을 향유하면서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닌 평생교육으로서의 이행과 무용 대중화에도 할 발 다가서게 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서 제외되었던 현상으로는 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서 동작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일지에 작성할 내용을 잊게 되고, 작성할 부분을 생각하면 동작에 집중이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성인 학습자들이 초보자임을 감안했을 때 이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체의 움직임에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발레동작을 수행하는 신체 인지 미숙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혼동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는 지식적 습득과 신체인지의 혼동이 미미하게나마 줄어들을 경험한 것으로 보아 발레 경험기간이 증가 할수록 이러한 혼동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위에 덧붙여 제안하자면 초보자의 수업성찰일지 작성의 경우 수업 모두 끝난 이후 교수자가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기록할 것을 제시해주는 방식이나, 일정 기간 동안 한 가지의 주제를 정해 깊게 알아보고

성찰하는 방법, 또는 일지 원본 제출이 아닌 기록을 인증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일지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무용전공생들은 오랜 기간의 훈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반면 성인 학습자들은 오랜 경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순히 보여지는 동작만을 모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수업성찰일지 작성을 통해 발레 용어를 공부하게 되었고, 더 확장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게 되었다. 이를 통해 발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인식 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용어 학습이 동작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무용에 대해 심화된 마음을 갖게 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도 실기 뿐 아니라 용어 숙지 및 무용이론을 병행한 전문적인 교육 방안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발레수업에서의 성찰일지 작성의 교육적 효과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무용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발레학습의 전문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과 같은 초보 학습자들이 발레기초지식을 쌓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고, 이를 통해 발레라는 예술 장르에 이해를 도와 발레 대중화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이 인문학적 방식을 적용한 실기 수업은 추후 성인 취미발레의 학습적 발전과 향유지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발레 경험이 오래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초보자와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거나 발레가 아닌 타 무용 장르에서도 적용해볼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고문수(2021). 뉴스포츠를 활용한 체육수업에서 수업일지의 활용 경험과 의미. *교육문화연구*, 27(6), 543-563.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II: Methods*. 아카데미프레스.
- 김완일, 김옥란, 이호진, 권명훈(2018). *논문 유형별 연구 방법론*. 사이앤북스.
- 김인영(2016). *무용 실기수업 성찰일지 개발 및 적용*.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김재은, 노미라, 윤필규(2022). 성인발레 참여 여성들의 경험과 의미. *한국무용학회지*, 21(4), 79-90.
- 김재은, 서예원(2011). 무용교육의 인문학적 과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2(1), 1-16.
- 김지현(2021). *성인 취미발레 학습자 교육 요구분석*.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노은초(2014). 성찰일지를 활용한 부전공자의 효과적인 발레수업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2(1), 459-470.
- 노은초(2015). 무용전공자들의 무용학적 글쓰기가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6(3), 183-201.
- 박수영(2019). *성인취미발레 참가자의 진지한 여가와 페르마 및 발레지속의사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유은혜, 윤혜선(2018) 성인발레학습자의 경험실태 연구. *예술교육연구*, 16(1), 37-52.
- 유정재, 이정화(2008). 무용 수업에서 글쓰기 과제 경험의 교육적 의미. *한국무용학회지*, 8(2), 1-9.
- 허가영(2015). FGI를 통한 30, 40대 여성들의 발레 교육 경험의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6(3), 243-262.

논문투고일 2023. 05. 15.

심사일 2023. 05. 24.

심사완료일 2023. 06. 07.

A Qualitative Study on the Reflective Journal Experience of Adult Ballet Learners

Kim, Soo Ah* · Park, Soo Young**

Ph.D. Candidat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Candidat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 of reflective journal writing experiences on adult ballet learn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analysis of the method revealed the followings: (1)the participants' experience of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was meaningful as a means of understanding ballet and learning ballet terminology. (2)the process of writing a reflective journal helped participants enhance their cognition and body awareness. (3)participants experienced fluctuations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during the process of writing a reflection journal. (4)writing a reflection journal motivated participants and allowed them to experience a sense of self-efficacy in their ballet class. (5)the participants reflected on the meaning of ballet while writing a reflection journal, and this process of reflection was expanded and connected to the external aspect. Therefore, in ballet classes for adult learners, an education combining practical lessons with the acquisition of terminology and theory is required.

Keywords: Dance education(무용 교육), Reflective journal(성찰일지), Ballet(발레), Adult ballet(성인발레), Qualitative research(질적연구)